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05>

JCCT 2023-7-12

영화치유 수업사례 연구 -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Cinema Therapy Class - Focusing on the movie *Life of Pi*(2013)-

박해랑*

Hae Rang Park*

요약 본 연구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을 통한 영화치유의 수업사례이다. 영화치유는 영화를 통한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 투사, 관찰학습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영화 속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자신에게 동일시하고, 공감하게 된다. 학생들은 영화 속 인물의 상황을 평가하고,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통해 영화 속 인물이 당면한 고난을 간접 경험하고,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 주인공의 뛰어난 점을 동경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결국 영화를 통해 학생들의 감정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를 통한 치유는 치료자가 내담자를 고려한 영화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화치유의 방안은 앞으로 다양한 치유 방법의 제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감정, 영화치유,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 투사, 관찰학습

Abstract This study is an example of a Cinema Therapy class through the movie *Life of Pi* (2013). Cinema Therapy proceeds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empathy, projection, and observational learning through the cinema. Through research, students objectively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identify themselves, and empathize with them. Students evaluate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 in the movie, and indirectly experience the hardships facing the character in the movie through the answer to "What would you do if I were the main character?" and think about what they would do. I admire the outstanding points of the main character and reflect on my life.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examine the situation of their emotions and problems and specifically suggest ways to solve them. In the end, students' emotions can be fully healed through the movie. Healing through the cinema should start with the selection of the cinema in consideration of the healer's client. It is also necessary to sufficiently present a specific method of apply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cinema healing plan will be able to develop further by presenting various healing methods in the future.

Key words : Emotional, Cinema Therapy, Identification, Empathy, Projection, Observational Learning

*정회원,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2일

Received: May 31, 2023 / Revised: June 26, 2023

Accepted: July 2, 2023

*Corresponding Author: phr2030@naver.com

Dept. of Advertising & PR, Seowon Univ, Korea

I. 서론

‘COVID-19’ 이후 우리는 언택트와 콘택트가 혼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서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기도 한다. 손상된 감정은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현대인들을 자연 혹은 다양한 것으로 개인적인 치유의 삶을 추구하게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이 받은 감정적 손상에 대한 다양한 치유 방법에서 영화를 통한 치유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한 치유의 방법이 일정부분 연구되었지만, 내용과 방법 면에서 전문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발전적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유 수업사례를 통해 영화치유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영화치료의 선구자인 비르키츠 볼츠(Birgit Wolz)는 영화치료(Cinema Therapy)란 개인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 영화를 의식적으로 관람하고, 치료적이거나 의식을 높이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

1895년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한 이래 100여 년 동안 영화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영화치료는 영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현대 영상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영화를 포함한 영상자료가 갖는 치유적 힘을 자신에게 또는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과정으로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서서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영화치료(Cinema Therapy)는 상담과 심리치유에 영화 및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치료적인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매체로 영화를 선택하고 상담자-내담자-영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통찰을 깨우치도록 하는 과정이다. 영화치료라는 용어는 1990년에 버그-크로스(Berg-Cross)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버그-크로스는 영화치료가 영화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인 ‘꿈, 기억, 환상’ 등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특수한 마음 상태를 발견하고 숨겨진 자아를 찾아 재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2].

영화 평론가 심영섭은 네 가지 관점으로 영화치료의 심리적 기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영화에는 내담자가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금지된 욕망과 정서를 투사하고, 주인공 캐릭터의 행동을 모방하고 이상화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상관계적 접근이다. 영화치료 과정을 보면 대부분 내담자는 영화가 재미있어서 보며, 이것은 영화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놀이적 속성이다. 내담자는 영화를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판타지를 경험하면서 현실 속에 잠재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인지학습적 접근으로 영화 감상을 통해 내담자는 주인공 캐릭터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고,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반성할 수 있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 의미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넷째는 실존주의적 접근으로 영화는 다양한 감각 양식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상징이나 은유를 전달해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자극한다. 영화치료의 과정 중에 내담자는 영화가 가진 상징, 은유를 스스로 해석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등 실존적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3].

영화치료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대상들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교육, 상담, 치료, 연수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광범위하다. 셋째, 예술 매체 중에서 가장 뒀진성(Verisimilitude)이 강하다. 넷째, 영화 자체가 보조 치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정서적 통찰을 얻는다. 여섯째, 공통의 경험을 가진다. 일곱째, 새로운 힘의 잠재력을 보여준다[4].

영화치료의 종류는 영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내담자의 영화관람 형태에 따라 감상영화치료와 표현영화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조)[5].

표 1. 영화치료의 종류
Table 1. Types of Film Therapy

감상영화치료		표현영화치료
자기 조력적 영화치료 (Self-help Cinema Therapy)		비디오 테라피 (Video Therapy)
상호작용적 영화치료 (Interactive Cinema Therapy)	지시적 접근	
	연상적 접근	영화 만들기 치료 (Cinema Work)
	정화적 접근	

영화치료를 위해 영화를 관람한다면 영화를 치료나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을 두고 관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치료를 위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등장인물 간의 갈등,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초점을 두는 치유적 관람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III. 영화치유 수업사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1년 하계방학, 2021년 2학기, 동계방학, 2022년 1학기, 하계방학, 2022년 2학기, 동계방학까지 총 7회에 걸쳐 ‘영화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회차별 5-10명이며, 학년은 1, 2, 3, 4, 학년이 고르게 참여하였다. 학생들과 수업한 영화치유에 대한 연구이다. 영화치유에서 다양한 영화를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회마다 실시한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 대한 치유적 감상을 분석한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는 주인공 ‘파이’의 힘든 삶의 여정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관람 시간 127분을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으로 이끌어간다. 영화를 통해 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영화를 감상하고, 수업에서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영화치유의 절차를 다음으로 설계하였다.

표 2. 영화치유의 절차
 Table 2. The Bibliotherapy process

절차	내용	문항
1단계	동일시(Identification)	9문항
2단계	공감, 감정이입(Empathy)	
3단계	투사(projection)	글쓰기
4단계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8문항
5단계	마무리	

글쓰기와 토론을 함께 진행했으며, 각 문항별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상이한 점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 문항은 연구자가 치유를 위한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

표 3.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 문항

Table 3. Question of Identification, Empathy

3.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 -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를 감상하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글로 작성해보세요.	
①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②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나요?
③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되었나요?
④	주인공 파이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⑤	파이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⑥	주인공 파이에게 동경되는 점이 있나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⑦	내가 만약 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⑧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른 기억이 있나요?
⑨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명대사, 장면, 사건 등) 그 이유도 얘기해보세요.

위 문항은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공감하여 감정이입을 하는 과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②번 문항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은 ‘영화의 영상미가 우수하다’를 포함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영화에서 감정선 자체가 크게 요동치지 않아서 잔잔한 느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바다와 배,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나와서 힐링 될 요소가 많았는데, 초반에 많은 일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고 나가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파이와 리처드 파커의 생명력이 느껴졌다. 요즘 많이 무기력했는데, 둘의 생존에 대한 의지가 나의 삶에 활력을 갖게 해주었다’ 등 같은 영화를 감상했지만 학생들이 받는 전반적인 느낌은 다양하였다.

③번 문항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답에서 학생들은 주인공 ‘파이’와 자신을 모두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영화 중 파이가 동물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다’, ‘파이가 호랑이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인 파이와 나는 호랑이 리처드 파커에 대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슷하다고 느꼈다’, ‘호랑이는 위험한 존재일 수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리처드 파커와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 닮은 것 같다.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제빵기사님과 단둘이 일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놀림 받던 파이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원주 율 값을 다 외우는 당찬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안된다며 꾸지람을 할 때 그걸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나와 비슷하다’ 등 학생들은 주인공 ‘파이’와 자신이 모두 닮았다고 표현하였다.

④번 문항 ‘주인공 파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해일로 인해 망망대해에 버려지게 되고, 작은 배 위에서 사나운 호랑이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바다 위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외에 ‘아버지와의 가치관 차이’, ‘파이가 겪었던 사실들을 보험사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인지, 꾸며낸 이야기로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 상황’ 등이라고 하였다.

⑤번 문항 ‘파이의 성격’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성격’, ‘여러 가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신들을 믿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어느 한 군체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주체적’이고, ‘외유내강의 성격,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늘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속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었다. 호랑이와 교류해야 하는 상황에도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살아서 육지에 도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끈기있고 생명을 사랑하는 성격’ 등이라고 하였다.

⑥번 문항 ‘파이에게 동경되는 점,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한순간에 가족도 잃고 망망대해에서 파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행동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적당히 하자라는 위주여서 파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공, 실패의 유무 없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다에 호랑이와 표류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파이의 모습이 동경되었다’, ‘내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거나 극복해야 할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함’, ‘위기 상황에도 버티나가고자 하는 의지력이라고 생각’,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속담을 표현한 영화 같았다. 파이를 보고 나도 어떤 상

황에서든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추진력과 의지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 ‘파이의 용기가 존경스러웠다. 리처드 파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폭풍우에 맞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내가 식충섬에서 치아를 본다면 그냥 ‘누군가 살았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관찰력과 매일 일기를 쓰며 기록하려는 현명함을 닮고 싶다’, ‘…… 의지를 가지고 결국 해낸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과정을 보았을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파이와는 조금 달랐다. 포기하지 않는 점들을 점차 배워간다면 훨씬 더 끈기있는 성장한 사람으로 될 것 같다’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주인공 파이의 끈기심과 열정적인 모습에 많이 동경하고 본받고 싶다고 하였다.

⑦번 문항 ‘내가 만약 파이라면’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다. ‘파이처럼 극한의 상황에 놓인다면 나도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이 파이처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노력이 아니었을 것 같다’,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과 맹수인 호랑이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 ‘리처드 파커와의 공존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물론 그 넓은 바다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곳에 혼자 남겨지는 것 역시 싫지만, 굶주림에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동물과 함께 머물고 싶진 않았기 때문’, ‘표류 중 리처드 파커가 배 아래로 떨어져서 배로 올라오지 못한 적이 있다. 이때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구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리처드 파커를 구했을 것 같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덜 외롭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처음부터 보트에 타지 못했을 것 같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가족들이 배 안에 있고 선원들도 아직 거의 보트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보다 더 필사적으로 보트에 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잘못 느낄 것 같다. 파이처럼 표류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습득하고 호랑이를 조련시키면서 노력하기보단, 기댈 곳조차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 등으로 대답하였다.

⑧번 문항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른 기억’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 전에 고양이를 주워서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꾸 여기저기를 깨문다. 그래서 파이가 호랑이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나도 고양이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 아빠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지루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때 아빠는 끝까지 계속 집중하면서 보셨던 기억이 있다. 나도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때, 광릉수목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이가 들었지만, 엄청 큰 호랑이를 본 적이 있었다. 멍하니 호랑이를 보게 되었는데, 뚜렷한 눈이 계속 생각났다’, ‘동물원 폐지를 주제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 동물들이 동물원의 환경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았다. 네 마리 동물이 싸울 때와 리처드 파커의 공격성을 보고 동물들이 이렇게 야생성을 갖고 있고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원 우리에게 간혀서 그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아픔에 한번더 공감했다. 동물원이 동물 보호와 그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파이가 호랑이와 대치하면서 (이성 vs 본능)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 기간의 내가 떠올랐다. 평소애 잠이 무척 많아서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 자고 싶다는 본능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지 않아야 한다는 이성이 내면에서 싸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등이다.

⑨번 문항에서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멕시코에 도착하고 파이가 구조됨과 동시에, 호랑이가 수풀 속으로 들어가고 파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식충성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영화 속 장면 중, 색감이 뛰어나고 표현이 좋았던 장면은 아주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화가 마친 뒤, 영화를 해석하였을 때’ 등이다.

‘동일시, 공감, 감정이입의 문항’에서 가장 유의미한 문항은 ⑦번과 ⑧번 문항이다. ⑦번 문항 ‘내가 만약 파이라면’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대단히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파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호랑이와 공존했을 것이라는 학생, 호랑이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학생, 아예 구명보트를 타지 못했을 것이라는 학생 등으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되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하였다. 영화 속 상황은 학

생들이 결코 당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화를 통해 학생들은 간접경험을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상황으로 동일시하고 공감해보는 것이다.

⑧번 문항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기억’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기억을 회상하였다. 아버지와 영화를 본 기억, 동물에 대한 기억, 동물 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기억을 회상하고, 사고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2) 투사 - 글쓰기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에서 두 개의 장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느낀 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영화 장면
 Figure 1. A Movie Scene

첫 번째 장면은 주인공 ‘파이’가 어린 시절 호랑이에게 고기를 직접 주는 장면이다. 두 번째 장면은 파이의 가족이 이민을 가는 중에 배가 침몰하고, 바다 위를 떠다니던 파이가 신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느낀 점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글쓰기
 Table 4. Writing

1	파이가 호랑이에게 고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순수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물에게 정이 많고 동물을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이가 주는 고기를 호랑이가 먹기 전에 아빠가 말리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아빠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호랑이가 파이의 고기만을 잘 먹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파이가 배 위에서 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의 모습은 참 절박해보였고, 신에 대한 믿음과 자포자기한 심정이 모두 보였던 장면이었다.
2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파이가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호랑이는 앞에 있는 고기만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손까지 물릴 수 있다. 파이의 생각이 정말 순수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길들이지 않은 맹수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파이의 행동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정말 파이가 절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만약 내가 파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하늘에게, 또 신에게 소리쳤을 것 같다. 파이의 절망적인 순간들을 다 알아서 그런지 파이가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것이 정말 많은 공감이 갔다.……

3	<p>나는 사람과 동물이 친구가 된 사례도 많이 보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순수한 동심을 가진 파이는 더욱 리처드 파커를 믿었을 것이고 스스로를 믿는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꾸중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무지람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을 했다. 열소라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한다.</p> <p>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며 호소하던 장면을 보고 웅장함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다. 자연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느꼈다.……</p>
---	---

학생들의 느낀 점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점은 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파이가 호랑이에게 먹이를 건네는 장면에서 파이의 순수함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믿음과 우려감을 표현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신에게 호소하는 것이 감동적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영화 속의 장면을 통해 영화를 통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3) 관찰학습 - 8문항

다음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를 감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문항이다(표 5. 참조).

표 5. 관찰학습 문항

Table 5. Observation Learning Question

5.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힘들었던 경험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③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거나 투쟁해본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④	내 삶에서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⑥	내 삶의 목표가 있나요?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이유도 말해보세요.
⑦	내 삶을 바꾸는 계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⑧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예: 영화 속 '파이'의 바다 위의 삶처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①번 문항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학생들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소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다. 그런 일을 겪어본 것은 처음이고, 겪어볼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

학교까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 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친해지기 오래 걸리는 성격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고등학교 시절의 동아리 활동이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의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생활과는 많이 달라서 힘들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와 전공과목이 많이 달랐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이 매우 빠르고 내용도 어려워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②번 문항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옆에 있어 주는 친구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극복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나를 엄청나게 말리고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었다. 특히 부모님께서 내가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자퇴보다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많은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적응하도록,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도록 노력했다’, ‘극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내면서 이겨냈다. 끈기와 성실함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고 수업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예습에 특히 신경써서 수업할 부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익혀갔다.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 방식이 채택되며 자유롭게 멈추고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었다. 내가 부족한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등이다.

③번 문항 ‘살아오면서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거나 투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요즘 계속해서 나 자신과 투쟁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를 찾지 못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를 찾지 못해서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임용이나 취업 시험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운 적은 없지만, 사람들과

부딪힌 적은 많았던 것 같다. 나를 4년간 따돌리려고 노력했던 동급생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나를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했다고 한다. 그 친구가 내 주변 친구들에게 이간질하는 바람에 조금 우울한 4년을 보냈다. 그러나, 오해를 풀려고 먼저 다가가고 밝은 성격을 그대로 유지했더니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준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투쟁 중인 것 같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와 많이 다른 제빵기사님과 한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심한 스트레스였다. 욕이나 상처가 될 말을 쉽게 내뱉는 기사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많이 애썼다.…… 방어적인 태도가 점점 몸에 익기 이전에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등이다. 학생들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성장이다.

④번 문항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면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과 멀리 떨어지고 혼자 자취를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고, 비대면이어서 학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바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나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외롭다고 느꼈다', '남자친구가 처음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많이 외로웠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지금까지 타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중인데 4년째지만 항상 적응되지 않는 것 같다. 기숙사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가족들에게 정신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설움을 느낄 때 가장 외롭다고 느낀다'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에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⑤번 문항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가족', '자신', '행복', '사람' 등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였지만 저마다 소중한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였다. 가족을, 자신을, 행복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⑥번 문항 '삶의 목표'에 대해 학생들은 '내 삶의 목표는 앞으로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것을 향해

후회 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아늑한 집에서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소박한 내 목표이다', '짧은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것이지만, 삶의 목표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학창 시절 많이 반항한 만큼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교사의 꿈을 꿀 수 있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나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자,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교사는 어릴 때부터 꾸었던 오랜 꿈이고 지금도 그 꿈을 많이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며 떳떳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휴식기를 가지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 '내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보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⑦번 문항 '삶을 바꾸는 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큰 계기는 없지만,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삶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를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맞지 않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이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나며, 생각하는 교사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나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중학교 시절 전학 와서 낯도 많이 가리고 아는 친구도 없어서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긴 1년의 시간이 있었다. 2학년 때 좋은 친구 세운이를 만나고 나서는 밝게 변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다', '교회를 다닌 이후로 삶이 바뀌었다.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목표와 비전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 삶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하였다' 등이다.

⑧번 문항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에 대해 학생들은 '실패와 좌절을 맞보면 다시한번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충분히 좌절한 후에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것 같다',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면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심해서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예 포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것 같다’,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난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때로는 기대고 다시 주저앉더라도 결국엔 일어나서 한 발짝 더 걸어갈 것 같다’, ‘실패한 이유를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유와 나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정말 뭘 해도 안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땐 절망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때여서 마냥 힘들어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니 이런 실패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여도 더 노력할 것이다’ 등이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대해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IV.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를 감상하고 학생들이 치유적 글쓰기와 토론을 진행한 수업사례이다. 학생들은 영화 속 주인공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영화 속 주인공 파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으며, 주인공에게 동경되는 점이 다양하였다. 주인공의 행위가 자신의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만약 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인공 파이의 적극적으로 대담한 행동에 감탄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도 파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은 파이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지라도 주인공 파이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3)는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적 상황을 주인공 파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영화 속 주인공의 대담한 행동에 동경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렵겠지만 끝까지 해결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화를 통한 인물의 ‘동일시와 공감, 감정이입’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 속 극적인 장면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하여,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투사’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영화와 연계한 ‘관찰학습’ 문항에서 자신의 상황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삶을 충실히 들여다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의 과정’, ‘끊임없는 투쟁’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였다. 이어 자신에게 ‘소중한 것’과 ‘외로움’의 감정을 통찰하고, ‘삶의 목표’를 다짐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감정 치유와 공감의 과정을 영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영화치유는 영화 속 주인공의 내면 심리와 등장인물 간의 갈등, 갈등의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어 치유적 관리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화의 선정 자체는 치료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치료자의 영화 선정과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과 행위에 관람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영화의 선정과 감상이 이루어져야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것으로 무수한 감정적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치유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에 영화를 통한 치유는 치료자가 내담자를 고려한 영화 선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화치유는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eon, Wonpil, So, Heejung, *Art therapy*, Park Young Story, p. 120. 2019.
- [2] Kim, Eun-ha et al., *The Basics of Film Therapy*, Park Young Story, pp. 4-5. 2017.
- [3] Shim Young-seop, Theory and Practice of film Therapy, Hakjisa, pp. 30-36, 2011.
- [4] Seon, Wonpil, So, Heejung, *Art therapy*, Park Young Story, pp. 125-127. 2019.
- [5] Kim, Eun-ha et al., *The Basics of Film Therapy*, Park Young Story, p. 14, 2017.